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광주의 새로운 창업거점 스테이지(STA·G)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광주의 세가지 약속' 경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일제강제동원 시민역사관·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참전기념탑 건립

광복 80돌 '기억에서 희망으로'... 광주의 세가지 약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80년 5월의 철저한 고립 속에서도 광주는 나라가 어려울 때면 늘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국난을 극복해 낸 도시였다"며 "광주의 힘은 역사를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에서 나오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빛고를 광주를 향해 뚝뚝뚝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의 새로운 창업공간 스테이지(STA·G)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 참석해 "광주역 일대는 일제강점기 물자 수탈의 길목이자 청년·학생들의 저항 공간이었다. 현재는 창업가들이 꿈을 키우는 곳으로 탈바꿈했다"며 이러한 공간의 변화를 '희망을 희망으로 바꾸어낸 상징이라고'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광주시, 광복 80주년 경축식 광주역 '스테이지(STA·G)'서 개최
 AI·미래차산업으로 수도권·영남 중심 구조 뛰어넘는 도약 표명

리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광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광주역 일대의 변화를 시작으로 아픔을 간직한 광주의 공간들을 희망으로 채워나가겠다"며 "옛 광주교도소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문화시설로, 적십자 병원은 창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분야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광주를 힘주어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가동 중이며, 158개 기업과 637개 일자리

가 광주에 유치된 상태다. 특히 6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확정과 1000개 인공지능 기업 유치, 첨단3지구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9월 20만 대 생산 달성을 앞두고 있으며, 2027년 35만 대 생산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행 중이다. 새롭게 조성될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에는 2조원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 시장은 "광주가 5·18을 지켜낸 덕분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5·18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찾아준 것처럼 일제강제동원의 아픈 역사

도 지켜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광주의 세 가지 약속' 실현을 다짐했다. 광주의 세 가지 약속은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조성 ▲고(故) 이금주 회장의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참전기념탑 건립 등이다.

강 시장은 "전방·일방 부지는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수탈과 강제 동원, 산업화 시기 공장 노동자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공간인 그곳에는 복합소평물 공사가 한창이다"며 "이 역사관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일제강제동원의 부당함을 알리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역사관 건립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제안과 광주시의 결단, 민간사업자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2면에 계속> /전광훈 기자

숨김 급급 광주 지하수오염·SRF악취

SRF기준치 이상 악취... 산단 1군 발암물질 검출
 주민 "유해 성분 확인하고 시설 가동 중지부터"
 환경 전문가 "공공의 안녕, 투명한 성분 공개를"

광주 광역위생매립장 내 자연생태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정 허용 기준을 넘는 악취가 발생하고 지역 내 산업단지(산단) 지하수에서도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주민 건강권이 위협 받고 있다.

행정당국이 환경 조사 결과를 곧바로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불신도 커지고 있다. 주민과 환경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6월과 이달 악취 측정 결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내 SRF시설 배출구에서 희석배수 669가 검출됐다. 악취 법정 허용 기준인 500을 넘는 수치다.

지난 2023년 여름철 발생한 악취 민원은 올해 폭증했다. 악취 민원은 2023년 16건,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311건으로 늘어났다.

SRF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로 잠에서 깨거나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유해 성분 확인과 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주민 원성이 높아지자 관할 행정당국인 남구와 광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가동 중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RF 운영 업체는 이렇다 할 악취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경위를 파악 중이다.

환경2지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주민 건강이 위협 받는데 시설 밀폐나 설비 문제가 있다면 당장 가동을 중지하고 행정 처분도 과태료부과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 하남산단과 본촌산단에서도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광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을 의뢰해 하남산단 전역 171개 지점에 657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이중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가 117개,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가 67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소장은 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해 과거 노출량을 산출해 생태계 잠복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단 기업 편에 서는 게 아닌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분을 날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다났다.

TCE와 PCE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금속부품 세정제나 접착제 첨가제 등에 이용된다.

당시 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하수 사용 중지 행정 조치와 이용 현황, 오염 실태조사 권고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발암물질 논란이 일자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인근 주거지 174곳을 대상으로 지하수 관정을 전수조사했고 산단 내 16곳은 기준치를 초과한 TCE와 PCE가 검출됐다. 광산구는 지하수 이용자를 상대로 수질개선 명령을 내렸다.

앞서 북구에서도 지난 2021년까지 같은 조사를 진행했는데 본촌산단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TCE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주 오염 지역인 옛 로케터건전지 부지와 호남사니 부지에서는 30~40년 전 사용된 발암물질로 추정된다.

광산구와 북구 모두 지하수 오염 용역 공개 의무 조례도 있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SRF시설과 지하수 발암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의 안전한 대처를 지적하며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를 날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최 소장은 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해 과거 노출량을 산출해 생태계 잠복 가능성과 인체 유해성을 파악해야 한다. 산단 기업 편에 서는 게 아닌 공공의 안녕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분을 날같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부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